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황대인

KIA 남은 6경기서 '답' 찾는다

17·18일 SK, 19·20일 두산, 21·22일 KT전…시범경기 마무리

시즌 엔트리 확정…'에이스' 윤석민·'5할 타율' 황대인 보직 관심

마지막 6일이 KIA 타이거즈의 올 시즌을 보여준다.

KIA는 17·18일 안방에서 SK와 시범경기를 치른 뒤 두산(19·20일)·kt(21·22일)와의 승부를 위해 원정길에 나선다.

남은 6번의 시범경기를 통해 아직 끝나지 않은 자리 고민을 마무리 한다. 정예 멤버들도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면서 올 시즌을 미리 엿볼 수 있다.

KIA는 3연승 뒤 3연패를 기록하고 있다. 마운드 표정에 따라 승패가 엇갈렸다.

3연승 기간 우려를 샀던 마운드가 순조롭게 운영되는 등 공·수·주에서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KIA는 홈에서 치른 주말 경기에서는 앞선 경기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며 아쉬움을 남겼다.

마운드는 막강 화력을 과시한 LG 타자들을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했고, 야수진은 공·수·주에서 실수를 연발했다.

15일 경기가 1-11의 무기력한 패로 끝난 뒤 평소보다는 무거운 분위기에서 미팅이 진행됐다.

김기태 감독과 이대진 투수 코치는 마운드 구성을 논의 하는 등 6경기를 남겨두고 전체적인 틀을 그렸다.

남은 시범경기가 테스트 무대가 아니라 시즌 준비무대로 전환되면서 함평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이들도 있다.

KIA는 함평에서도 SK(17일), 원광대(18·19·20일)와 연습경기를 치르며 엔트리 정비 작업과 조련을 1·2군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남은 6일을 통해 답을 찾아야 할 가장 큰 고민은 윤석민 보직이다.

앞선 등판에서 선발 후보인 임기준과 마무리 후보인 심동섭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윤석민 고민'은 깊어졌다.

윤석민이라는 카드에 따라 전체적인 마운드 윤곽이 달라지는 만큼, 김기태 감독은 신중하게 시간을 가진 뒤 윤석민의 보직을 확정할 방침이다.

윤석민에 눈길이 쏠리는 마운드, 타석에서는 슈퍼 루키 황대인의 움직임이 관심사다.

수비가 약점으로 꼽히지만 고졸 신인인 황대인은 야무진 타격으로 점점 자신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스프링 캠프 '삼진왕'인 황대인은 이번 시범경기에서 홈런 포함 8개의 안타를 때려내며 5할 타율을 기록하고 있다.

신인답지 않은 파워와 자신감 있는 스윙으로 1985년 이순철 이후 명맥이 끊긴 타이거즈 신인왕 계보를 이을 재목으로 꼽히면서 황대인의 남은 시범경기도 흥미롭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T클럽' 회원 모집

KIA 타이거즈가 2015시즌 홈페이지 'T클럽' 회원을 모집한다.

T클럽은 1년 회원제로 운영되며 전용 게임 메뉴 등 구단 홈페이지(http : //www.tigers.co.kr) 내 모든 메뉴를 이용할 수 있다.

가입비는 2만원으로 16일부터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500명이며 가입선물로 목걸이형 카드 홀더가 주어진다.

(문의 : 070-7686-8053)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오~ '놀라운 Girl'

최민정, 첫 출전 세계선수권 女 쇼트트랙 종합우승

1,000m·3,000m·슈퍼파이널 1위…심석희 3위

한국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의 '신예 에이스' 최민정(17·서현고)이 처음 출전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최민정은 15일(한국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201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 이틀째 여자 1,000m와 3,000m 슈퍼파이널에서 연달아 1위를 차지했다.

여자 1,000m 결승에서 1분32초730의 기록으로 엘리스 크리스티(영국·1분32초782)를 제치고 우승한 최민정은 이어 벌어진 3,000m 슈퍼파이널에서도 5분40초480로 심석희(세화여고·5분40초908)에 앞서 1위로 골인했다.

전날 여자 1,500m 동메달과 500m 4위에 오른 최민정은 이날 결과까지 합산한 순위 포인트 89점을 기록, 아리안나 폰타나(이탈리아·68점)를 밀어내고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재목'으로 주목받다 올 시즌 성인 무대에 오른 최민정은 처음 출전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정상을 밟으며 데뷔 시즌을 화려하게 마무리했다.

한국 여자 쇼트트랙은 지난해 종합 우승자인 심석희에 이어 올해 최민정까지 2년 연속 종합 우승자를 배출했다. 여자 대표팀은 첫날 여자 1,500m와 500m에서 금메달을 수확하지 못했지만, 이날 상위 8명이 출전하는 3,000m 슈퍼파이널에서 최민정·심석희에 이어 김아랑(한국체대·5분41초071)이 3위에 올라 1~3위를 휩쓰는 기쁨도 누렸다.

남자 대표팀도 금메달 소식을 추가했다. 박세영(단국대)이 남자 1,000m 결승에서 1분25초155의 기록으로 샤를 아블랭(캐나다·1분25초189)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한 개도 따지 못했던 남자 대표팀은 박세영의 활약으로 2년 만에 금맥을 이었다.

대표팀은 계주에서도 모처럼 금메달 소식을 전했다. 노도희(한국체대)-심석희-김아랑-최민정이 호흡을 맞춘 여자 대표팀은 3,000m 계주 결승에서 4분18초550의 기록으로 중국(4분18초595)을 제치고 우승했다. 한국이 계주에서 금메달을 딴 것은 2010년 이후 5년 만이다.

그러나 이정수(고양시청)-박세영-신다운(서울시청)-서이라(한국체대)로 팀을 이룬 남자 대표팀은 5,000m계주 결승에서 7분22초463의 기록으로 4위에 처져 동반 우승의 꿈을 내년으로 미뤘다. /연합뉴스

강정호, 이번엔 '레이저 송구'

ML 비공식 평가전서 3루수 출전 호수비

피츠버그 파이리츠 내야수 강정호(28)가 비공식 평가전에서 3루수로 나서 호수비를 선보였다.

피츠버그는 16일(한국시간) 팀을 두 개로 나눠, 역시 팀을 두 개 구성한 볼티모어 오리올스를 상대로 시범경기와 비공식 평가전을 치렀다.

강정호는 미국 플로리다주 사라소타의 에드 스미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비공식 평가전에 4번타자·3루수로 선발 출전했다. 7회까지 열린 경기에서 강정호는 삼진 한 개를 포함해 3타수 무안타에 그쳤지만 좋은 수비를 보여줬다.

MLB닷컴은 "강정호는 7회까지 경기를 모두 소화했다. 타석에선 3타수 무안타를 기록했지만, 두 차례 놀라운 수비를 펼쳤다"고 전했다.

이어 "강정호가 아직 영어에 능통하진 않지만, 라인 근처로 빠르게 날아가는 타구를 잡아 3루 주자를 베이스에 묶고 1루에 송구한 뒤 피츠버그 더그아웃에서 들려온 '나이스 플레이'의 의미는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정호의 호수비 장면을 묘사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양궁 세계 1위의 위엄

이승윤, 국가대표 선발 1회전 695점…임동현 세계기록 -4점

양궁 세계랭킹 1위 이승윤(코오롱)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첫날부터 빛나는 감각을 뽐냈다.

이승윤은 16일 강원 동해공설운동장에서 열린 2015년 국가대표 3차 선발전 1회전 기록경기에서 70m 72발 합계 695점을 쏘아 1위를 차지했다. 이 부문의 남자부 세계기록은 임동현(청주시청)이 보유한 699점이다.

작년 유스올림픽 챔피언 이우석(인천체고)이 691점으로 2위, 신재훈(국군체육부대)이 690점으로 3위를 기록했다.

여자부에서는 박미경(대전시체육회)이 677점을 기록해 1위에 올랐고 최미선(675점·광주여대), 강채영(672점·경희대), 기보배(671점·광주광역시청)가 뒤를 따랐다. 이 부문의 여자부 기록은 은퇴한 박성현이 보유한 682점이다.

대한양궁협회는 오는 23일 세트제 리그전과 기록경기를 펼쳐 올해 국가대표 남녀 8명씩을 선발할 계획이다.

협회는 다음 달 두 차례 평가전을 통해 남녀 정예진 3명씩을 추려 세계선수권대회에 파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